

# 양림의 가을밤 재즈로 물들다

27~29일 '양림국제재즈페스티벌'

그레미상 후보 엘다 장기로프  
 알토 색소폰의 거장 짐 스티네로  
 히로노리 스즈키 등 유명 뮤지션 총출동  
 업뎃브라운 등 국내 재즈밴드 다수 출연  
 29일 오케스트라 결합한 콜라보 무대



히로노리 스즈키 퀸텟



짐 스티네로



업뎃브라운

가을밤, 양림동이 재즈로 물들다.  
 '양림국제재즈페스티벌'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양림동 일원에서 열린다.  
 재즈는 미국 토종 음악 장르로 시작해 전 세계 음악인들의 자유·민주·평화를 상징하는 장르다. 양림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리는 양림동은 1904년부터 양림동에 거주하면서 교육, 의료 선교 등 근대문화를 최초로 전파한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은 재즈의 정신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선택됐다.  
 이번 재즈페스티벌에는 엘다 장기로프가 등장한다. 그의 무대는 27일 오후 8시 10분에 만날 수 있다. 엘다 장기로프는 재즈의 본고장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재즈페스티벌에서 활동중이다. 그는 마이클 브래커, 론 카터, 데이브 브루벡, 윈튼 마살리스, 조슈아 레드먼, 크리스 포터 등 거장들과 함께 연주했으며 2008년에는 그레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에서 온 또 한명의 아티스트 짐 스티

네데로는 프랭크 시나트라 빅 밴드, 밍거스 빅 밴드, 에디 팔미 엘, 에디 고메즈와 활동한 뮤지션이자 '알토 색소폰의 거장', '마스터 음악가'로 선정된 뮤지션이다. 그의 공연은 28일 오후 8시 20분에 펼쳐지며 솔로 색소폰 공연을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밴드들과 함께 공연 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온 히로노리 스즈키는 드러머이자 작곡가로, 현재 도쿄에서 유명한 뮤지션들과 함께 독창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버클리 음악 대학의 재즈 작곡과에서 다닐로 페레즈, 존 패티투치, 조 로바노, 데이브 리브먼과 함께 공부했다. 현재 일본과 세계의 재즈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광주공연을 위해 특별히 퀸텟 밴드를 구성해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도 재즈밴드 업뎃브라운, 오영준 퀸텟, 폴 커비 트리오, 토니 재즈 오케스트라, 플레이가온(퓨전 국악 & 재즈), 강윤숙의 재즈여행, NS 재즈밴드가 참여한다.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오케스트라와 재즈를 결합한 콜라보 공연이 오원기념각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라 아르스필 하모니(지휘 김태현)의 재즈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동시대 재즈보컬 고아라(동시대 교수)가 협연한다.  
 또한 우리지역의 클래식과 실용음악전 공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엘다 장기로프와 짐 스티네로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양림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양림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는 주무대공연 외에 신인 무대는 팽귄마을 입구에서 진행되며, 플라마켓과 야외캠핑장은 양림동 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관광청 홈페이지(visitang-nim.kr)와 페이스북(facebook.com/visitangni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7-2324.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학평론가 황현산 초청 강연...25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문학평론가 황현산(고려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사신)씨가 광주를 찾는다. 25일 오후 7시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원.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하는 '치유의 인문학' 여덟번째 강좌에 초청된 황교수는 이날 '시와 희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황교수는 강의를 통해 "시가 만들어지고 수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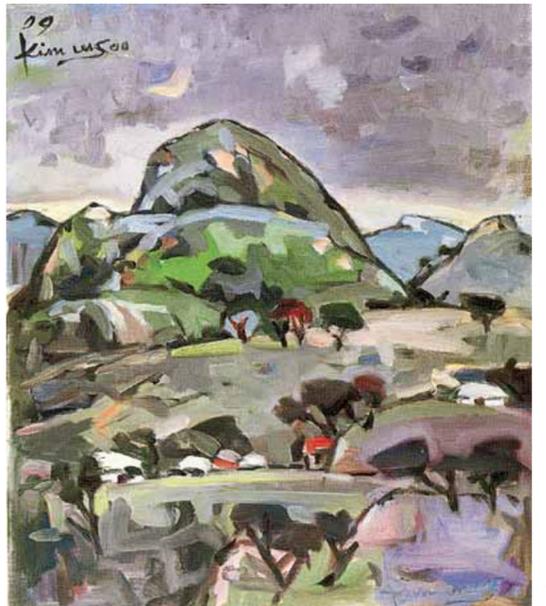
과정을 고찰, 시가 좋은 세계를 직관으로 파악하고 그 세계에 대한 희망을 유구하게 전달하고 유지하는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목곡 출신인 황교수는 한국번역비평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잘 표현된 불행', '밤이 선생이다', '우물에서 하늘보기'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문의 062-601-19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은수 유작전 '그리움' 27일~11월 3일 북구 자미갤러리

원로 작가 노의웅 선생(75)에게 잊지 못할 스승이 있다. 광주상고 재학 시절 만난 미술교사(故) 김은수 작가다. '언제나 친구처럼 대해 주시던, 정말 좋으셨던' 선생님과 학교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료로, 든든한 후원자로, 인생 선배로 자리했다. 특히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스케치를 나가 그림을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며 많은 추억도 쌓았다.



몇년 전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노 작가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선생님의 그림을 모아 유작전을 언젠가, 꼭 열자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광주시 북구청 후원을 받아 자미갤러리에서 오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리움'을 주제로 김은수(사신) 유작전을 연다. 가족들에게 흠어져 있던 작품들 가운데 30여점을 추려 기획한 전시다.  
 나주 출신인 김 작가는 45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1963년 제12회 국전에서 입선했으며 광주와 서울에서 5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가톨릭 미술가회, 황도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 작가는 1993년 정년 퇴임 후에는 붓을 손에서 떼지 않고 작고할 때까지 작가로서 열정을 불태웠다.  
 김작가의 작품에선 풍부한 감성이 느껴진다. 어디선가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경이지만 그의 붓질이 지난 후, 차분한



'고향'

색감의 그림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온화한 기운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느덧 위안을 얻는다. 그의 그림은 부드럽고 정감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강렬함도 존재한다.  
 전시에서는 흥도, 여수항, 청산, 돌산 등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풍경화가 전시된다. 탐스러운 과일과 화병에 꽂힌 풍성한 꽃다발 등이 인상적인 정물화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단 한번도 그분을 잊어본적이 없

요. 선생님의 작품이 참 좋은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기가 너무 애석해 항상 유작전을 열어줘야 싶습니다."  
 오픈 행사는 27일 오후 6시 열린다. 노 작가는 은사님과 함께 학교에서 근무했던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추억하기 위해서다. 문의 062-410-61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트그룹 소나무 20주년 기념전

11월 15일까지 국윤미술관



조규철 작 'on the Road'

'모든 초목들이 시들은 뒤에야 그 진가를 안다는 소나무의 기상과 같이 우리 젊은 그림 가족들은 항상 사시 푸르른 상록수 정신을 따라 그 젊은 꿈과 이상을 화폭에 불사르겠다.'  
 1997년 광주 공동갤러리에서 열린 창립전에 참가한 젊은 작가들은 폐기 있게 미술 그룹의 출발을 알렸다. 아트그룹 소나무다.  
 그룹 이름처럼 늘 푸른 기상으로 작업을 해온 아트그룹 소나무가 어느덧 20년을 맞았고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아트그룹 소나무를 초대해 기념전을 진행한다.  
 전시 제목은 '천년송'이다. 지리산에서 500년을 자생한 '천년송'은 아트그룹 소나무의 20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은 주제다.  
 회원들은 지난 9월 초 지리산 외운마을에 심어진 천년송(천연기념물 제 424호)을 답사하고 스케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년송을 테마로 한 작품 1점씩과 각 회원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2점 등 작가당 3점씩을 출품했다.  
 참여 작가는 창립 멤버인 류재웅 작가를 비롯해 조규철 회장,

장용훈, 위진수, 김영일, 이선복, 정경래 작가 등 모두 13명이다. 전시 기간 중에는 4회(25일, 27일, 11월 1일, 11월 3일)에 걸쳐 미술체험 프로그램 '소나무 리듬'을 진행한다.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15명까지 가능하다. 체험프로그램은 큐레이터와 함께 '천년송' 전시의 다양한 소나무 모습을 감상하고, 참여자가 직접 자신만의 소나무를 판넬에 채색하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232-73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